

반등 노리는尹·몸값 키우는安...단일화 염두 지지율 총력전

윤, 선대위 쇄신안 통해 홀로서기 보수층 결집·2030에 구애 손짓

안, 지지율 두자릿수 확보 주력 설 연휴까지 3강 체제 구축할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가 2030세대와 중도층을 적극 공략하며 지지율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는 추후 지지율 흐름에 따라 급부상할 수 있는 야권 후보 단일화 이슈를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단일화 협상을 하게 될 경우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는 결국 지지율에 달렸기 때문이다.

윤 후보가 안 후보와 오랜 악연이 있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위원장과 결별하면서, 단일화 전략 등에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된다. 전남 김종인 전 위원장과 결별하고 '홀로서기'에 나선 윤 후보는 이달 안에 어떻게든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설 연휴까지 가시적인 지지율 반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당내에서 야권 단일화 요구가 분출하며 불리한 위치에서 단일화 협상장에 내몰릴 수 있어서다. 이를 의식한 듯 윤 후보는 조강수 선대위 쇄신안을 통해 보수 지지층 결집에 나선 동시에 "단일화 논의는 선거 캠페인 도중 이야기하는 게 도의에 맞지 않다"며 선을 긋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의 지지율 흐름을 보면 윤 후보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 분포된 중도층 표심과 2030 청년 표심 이탈이 뚜렷한 모습이다. 이

에 윤 후보는 지난 5일 선대위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2030 청년 세대를 주축으로 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6일 오후에도 청년 보좌역들과 간담회를 하는 등 연일 2030을 겨냥해 구애의 손짓을 보내고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0%대를 기록한 안 후보 역시 국민의힘 내용의 반사이익을 얻어서 안정적인 두 자릿수 지지율을 확보해야 승산이 있는 만큼,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분위기다. 안 후보는 최근 "1월 말부터 2월 초순, (구정)설 주연으로 '3강 트로이카 체제'로 만들겠다"며 설 연휴까지 여야 후보가 선수를 다투는 양강 체제를 자신을 포함한 3강 체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최근 안 후보는 연일 "저만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하고 있다.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정권교체 여론을 따라가

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7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충청 지역을 방문해 중원 공략에 나설 예정이다. 아직 야권에서 밖으로 표출되는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없는 상태. 양측 모두 공개적으로 '단일화'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윤 후보 측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전남 기자들과 만나 안 후보와의 야권 단일화 실무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지금은 그럴 필요는 절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목적은 후보 단일화 없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가자는 게 우리 선거대책본부에 관여하는 모든 분의 의지"라고 자강론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무자격한 후보들과 단일화하려는 요구는 없다"면서 "야권 내 지지율 골

든 크로스를 이뤄서 결국 양강 구도로 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선이 점차 가까워지고 현재의 지지율 추세가 굳어져 버리면, 결국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는 여론이 조성될 수밖에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후보가 쇄신 행보에도 최종적으로 지지율이 안 나오면 단일화 논의 (요구)가 안 나올 수가 없다. 단일화를 안 하면 다 죽는 상황이 눈앞에 뻔히 보이면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서 "지지율을 보고 당내에서 안 후보를 대안으로 삼는 사람이나 윤 후보에게 반감을 품은 사람들이 점점 윤 후보에게 가서 붙는 경우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정책조정회의의 발언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가운데)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이준석, 당직 인선 정면 충돌

李 "내 도장 찍힌 임명장 못준다" 尹 "의견 들었으니 그냥 임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6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서로 면전에 독설을 퍼부으며 정면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노린 인적 쇄신의 일환으로 주요 당직 물갈이를 시도하는 데 대해 이 대표가 개인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명시적인 반대를 무릅쓰고 권영세 선임 사무총장과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 임명안 처리를 강행했다. 이 대표가 회의 초반 "상정 권한은 당 대표에게 있다"며 임명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자 권영세 사무총장이 "윤 후보에게 당

무 우선권이 있다"고 나서며 언쟁이 시작됐다고 한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권 총장으로서 이날이 마지막 최고위 참석이었다. 이 대표는 특히 이철규 의원을 가리켜 "당 대표를 모욕하고 욕지거리를 해대고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자고 한 사람"이라며 강도높게 성토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사석에서 원색적인 욕설까지 했다는 정보 보고를 근거로 발간했다. 이에 권 총장이 "대선 후보나 당 대표나 원래 욕먹는 자리"라고 하자 이 대표가 "가르치려고 들지 마라"고 언성을 높이면서 혐악한 분위기가 연출,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윤 후보를 겨냥해 "대선 후보는 최고위 구성원이 아니고 최고위 의장도 될 수 없다"며 안건 상정을 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의 '자격 미달'을 걸고넘어진 것이다.

그는 임명안 자체가 과연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한번 정치적으로 논의해보자"며 즉석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이 대표를 향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드렸으니 이제 그냥 임명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그것이 협의의 절차"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임명안 상정과 관련, "마음대로 임명장 쓰시라"며 "제 도장이 찍힌 임명장이 나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윤 후보는 권영세 선임 사무총장만 우선 임명하고 이철규 부총장 임명은 보류하자는 이 대표의 역제안을 일축하며, "좀 기다려보다 답이 없으면 둘 다 임명하겠다"고 회의실을 박차고 나갔다. 이에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에서 이준석의 거취까지 한번 논의해보자"라며 "앞으로 제가 최고위에 참석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격분했다. /연합뉴스

8일부터 정당·후보자 명의 대선 여론조사 금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8일부터 선거일인 3월 9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과 소속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다만 ▲법령에 따라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방선거 금품 제공 신고 '전국 첫 포상금'

도선관위, 1300만원 지급 결정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의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한 주민 A씨에게 포상금 13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차기 지방선거 관련 전국 첫 포상금 지급 결정 사례라고 전남 선관위는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전남 모 기초단체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배우자 B씨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원과 선거구민에

게 제공할 90만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고 이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해 12월 22일 검찰 고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부 보상금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후보자 등에서 금품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명진 호남대 초빙교수, 이재명 특보단 총괄상임부단장 임명

김명진(사진) 호남대 초빙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보단 총괄상임부단장에 임명됐다. 국민의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김 교수는 지난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광주 서구갑에 출마해 낙선했다. 김 교수는 이번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사면' 방침에 따라 민주당 탈당 6년 만에 복당 신청을 했다.

김 교수는 6일 "제4기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는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대통합 필요성이 절실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통합노선 천명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복당을 했다"며 "대선 승리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p> <p>시세 -> 9억</p> <p>급매가 -> 5억8천</p> <p>(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p> <p>(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결(공실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수익 750만 ● 연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p>★ 4개동(월수익 3000만) => 연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